

데스크 시국



송기동 체육부장

“상대를 들어서 매치고, 안아 넣기 같은 큰 기술을 사용해 이겼을 때 짜릿하고 통쾌합니다.”

유도가 아닌 레슬링 이야기다. 지난 3일 광주체육중학교 오프관 2층 레슬링 훈련장에서 만난 주장 이현봉(15·3년)은 초등시절 배우는 수로 활약하며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만 바라보고 ‘구슬땀’

이후 중학교에 진학하며 대표적 남성 스포츠인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꿨다. 아직은 54kg급으로 소년체전에서의 금메달이 목표이지만 언젠가 올림픽 등 국제 무대에서 뛰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홍일점인 임수영(15·3년)은 업어치기가 특기다. 일반 중학교에 다니다 체육중으로

올림픽 정신, 레슬링 정신

전학을 와 2학년 때부터 시작한 레슬링이지만 힘들면서도 기술을 구사해 겨루는 것이 재미있다. 이날 훈련장에는 20여 명의 레슬링 꿈나무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기술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0년 하계올림픽부터 레슬링을 제외한 25개 핵심 종목(Core Sports)으로 치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레슬링을 올림픽 퇴출종목으로 지목한 것이다. 당시 IOC의 발표는 레슬링 꿈나무뿐 아니라 광주지역 체육계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레슬링이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양정도 자유형 62kg 급)을 안긴 것을 비롯해 올림픽 무대에서 총 35개의 메달을 딴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효자종목’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 올림픽 레슬링 메달리스트는 김원기(합평·미국 LA올림픽 금메달), 김영남(합평·서울올림픽 금메달), 김성문(광주· 〃 은메달), 노경선(해남· 〃 동메달), 안한봉(해남·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 김종신(합평· 〃 은메달), 민병갑(해남· 〃 동메달) 등 7명에 달한다.

IOC 발표 후 3개월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광주체육중 선수들은 동요하지 않고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다. 아직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선수들도 없다. 코치들은 “레슬링이 올림픽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린 제자들을 다독이고 격려하며 사기를 높이고 있다.

레슬링 꿈나무에 희망을

대한레슬링협회 역시 해병대 훈련장을 찾아 경기훈련을 하는 등 절치부심(切齒腐心)하고 있다. 우선 경기 스타일을 바꾸었다. 수비 위주의 경기로 ‘재미없다’는 비판을 의식해 좀더 공격적이고 큰 기술 위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제레슬링연맹(FILA)은 올림픽 복귀를 위한 레슬링 개혁안으로 그레코로만형 선수들의 경기복 상의를 벗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50년째 레슬링 외길을 걸어온 광주체육중 이종규(61) 감독은 “여느 종목보다도 더 잘해야 레슬링이 살아난다”며 선수들에게 정신적 자극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장태영 전남레슬링협회 전무(나주 호남예술고 레슬링 감독)도 “선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퇴출이’ 확정된 것 아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체육회와 레슬링 관계자들이 7일부터 10일까지 장흥에서 열리는 전남도 체

육대회에서 대대적인 레슬링 올림픽 퇴출반대 운동에 발벗고 나선다는 소식이다. 100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김원기, 안한봉 등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참석하는 스타 사인회와 결의대회도 마련된다.

지역 레슬링인들은 질박한 속에서도 “레슬링이 고대 올림픽에서도 치러진데다 1896년 근대올림픽의 1회 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유서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퇴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가득 믿음을 갖고 있다.

레슬링은 맨몸으로 힘과 기술을 겨루 승부를 가리는, 올림픽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IOC의 발표는 상업주의에 물들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레슬링의 운명은 오는 3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차기 IOC 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퇴출 여부를 검토한 뒤 9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IOC 총회 때 최종 결정된다.

우리는 레슬링 꿈나무에게 올림픽 무대에서 뿔 수 있는 꿈을 지속시켜줄 낭보(朗報)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견뎌내며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는 지역 레슬링 유망주들의 감동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다.

/song@kwangju.co.kr

은펜클럽



최영대 전남대 교수·역사학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가 국민에게 해 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의식주와 평화로운 삶의 보장이다. 불행히도 북한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최종 책임은 국가 경영의 책임을 진 김일성 가문이자 정씨 가문이다. 경제발전과 국가 경영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무엇보다 김일성 가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남한의 경우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는 문제만큼은 남한 국민들도 북한 주민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한

박근혜 가문과 민족문제, 그리고 청출어람

반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남북 모두 패자 상대가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어렵게 이룩한 남한의 경제력과 국민의 부도 크게 후퇴하고 말 것이다. 당연히 남한 정부 역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이 평화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줄 책무를 지니고 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모험주의로 나오는 주요 이유는 그런 극약처방책이 아니고는 북한의 안보와 김일성 가문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정적 리더십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무능하고 모험주의적인 파트너를 상대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김정은 정권이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내부 붕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전쟁을 통해 그들을 퇴출시키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핵무기를 개발할 정도로 군사 부분에서는 만만치 않은 능력을 보유한데다가 중국이라는 든든한 외교적 후원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승패를 떠나 한민족 모두를

공멸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결국 해결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존책 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마저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것 같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나 그 이후 계속된 군사정부 시절의 대북강경책은 일정 부분 당시 남한의 열악한 경제력이나 외교적 조건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력, 외교력, 군사력 등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충분히 압도하고도 남을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였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이룩해 놓은 대화와 협력의 노하우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과거 군사정권이 즐겨 찾았던 대결주의 정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보여 준 개성공단 해법은 과거 군사정부가 행한 심리전적 차원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으니 말이다. 극도의 열등의식과 위기의식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방식으로 평화공존의 테이블에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분방 공과가 함께 존재했다. 경제발전의 선장 노릇을 한 것이 주요 공과라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친일행적과 대결주의 중심의 대북정책, 특히 민족문제를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부정적 유산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아버지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거든 대북정책에서 아버지와 다른 방식을 선택하라.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성과를 올린 다음 아버지 시대의 남북대결정책을 변호하는 것이다. 경제력과 외교적 조건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아버지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고. 이런 것이 바로 청출어람의 리더십이며 그래야 박정희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도 완화시키고 명예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영화 속의 학교 풍경을 보고

수령 속으로 관객들을 밀어 넣어 따돌리는 ‘낯설게 하기’ 전략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도 없다. 처음부터 어지간한 눈치라면 뒷부분이 소박한 수준에서 예상대로 읽혀지는 정도의 구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가슴에 진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소한 영화만의 성공은 아니라고 본다. 바로 현재의 어려운 학교 풍경이 일정 부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그 어느때보다도 학교 교육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나 교육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긍정보다 부정의 담론 쪽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다 보면 학교교육의 실패나 교육 현장에 매도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전해오는 따뜻한 성공 사례보다는 잘못된 사례들이 더욱 크게 부각되어 다루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비판하는 마음 한편에도 교육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만큼 성공적인 학교교육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영화 속의 교육적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만큼 교육을 운명처럼 크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없다. 당연히 학교교육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비판을 뛰어넘어 모를지기 학교와 교사에 거는 사회의 기대치를 영화 속 학교가 실현시켜 주는 데서 관객들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영화가 한편으로는 고맙고 반가운 것이다. 영화가 실득력 있는 예술적 장치로 대리명령을 수행해 준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자신의 좌절된 꿈으로 인해 까칠한 교육열로 살아가는 문제적 선생 삼진과 “간달은 노래하면 안 됩니까?”라고 항변하며 끝내 석학의 꿈을 잃지 않는 정호와의 만남은 교사와 학생 양측 모두에게 ‘졸타’의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선생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교사의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문제 학생 한 명을 크게 성공시켰다는 고전적이고 원론적인 것만이 아니다. 교사와 특정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서, 학생도 특정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의 변화와 성장, 나아가 눈부신 성공신화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다.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제자가 대신 이루도록 혼신을 다하는 교사,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같은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하며 자신을 가꾸어 갈 줄 아는 학생 모두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 이런저런 일들과 상황 때문에 학교 교육에 실망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학교 풍경을 내심 간절히 기대하며 보고 싶어했던 것은 아닐까.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학교는 모두에게 끝까지 희망이 되어야 하니까.

학교 현장에서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위대한 신화를 낳는 일을 일상처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특히 교단에서 묵묵히 자신의 노력과 변화로 제자들의 위대한 성장을 꿈꾸며 제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선생님’들과 더불어 이 영화가 주는 감동을 통째로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도 시샘하는 추위 속에서 이파리도 없이 산천을 붉게 태우고 있는 진달래꽃이 채 지기 전에 우리 학교 몇몇 녀석들과 시간을 내서 이 영화를 함께 보는 기회를 가져야겠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전두환 추징금 시효 코 앞인데 왜 방치하나

5·18 광주유혈진압사태의 장본인인 전두환은 16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죄와 반란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자이다. 그는 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으면서 추징금 1672억 원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파렴치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씨에게 경호 등에 우를 해주고 있으며, 국회는 그에게 부과된 추징금 공소 시효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거나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2개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허송세월이다.

이들 법안은 미납 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송금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강제 유치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전씨 자녀들은 현재 호화 주택과 건물, 수십만 평의 땅 소유 등 수백억 원대의 재력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집권

과정에서 기업인들을 협박해 강제로 빼앗은 수천억 원의 불법자금이 그 일가에게 음성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전씨의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 그가 호화 골짜기에, 해외 여행을 다닌다는 게 가당한 일인가.

그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탐탁지 않다. 범죄자로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자에게 무려 30억 원에 이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해야 될 일인가.

국회는 서둘러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전씨 일가의 불법재산을 몰수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강제 노역을 시켜야 한다. 일반인들은 노역장에 보내면서 내란에, 반란에, 내란목적 살인죄까지 저지른 자를 국회가 두둔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정부 역시 경호를 담당 철폐하고, 오히려 그에 상응한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아니라면 민주와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겠다는 격이다.

한국 방문 중국관광객 3%만 전남 찾는다

지난 1~2월 국내에 입국한 중국관광객 100명 중 고작 3명만이 전남을 찾았다고 한다.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는 요우커(遊客·중화권 관광객) 특수(特需)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중국통’ 제2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은 31만7513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남을 찾은 중국관광객은 전체의 3.2% 수준인 1만259명에 불과했다.

국내 중국관광객은 지난 2009년 134만명, 2010년 187만명, 2011년 222만명, 2012년 283만명으로 매년 증가세에 있지만 전남은 2009년 3만873명, 2010년 5만2505명, 2011년 6만6606명에 그쳤다. 그나마 여수세계박람회개 열린 지난해 14만2456명을 유치했으나 이 역시 전국구의 5% 수준이다.

중국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자명하다. 인프라가 수준이 낮다는

게 그 첫째 원인이다. 전남을 방문하고 싶은데도 숙박시설이 열악해 포기한 사례가 수도무다하다. 관광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제주에 비해 관광 편의성도 한참 뒤처진다.

중국관광객들은 쇼핑과 카지노를 즐기는데 이 역시 전남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몇몇 백화점을 제외하면 전문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면세점도 무안공항 1곳뿐이다. 이런 현실에 관광객들이 과연 찾겠는가. 열악한 관광인프라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남이 일류관광지로 도약할 수 없다.

경유형이 아닌 체류형 여행지로서의 이미지를 갖춰야 하며, 이에 걸맞은 인프라가 탄탄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를 짜는 등 세심한 전력이 필요하다. 고급 호텔에서 중저가 게스트하우스에 이르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면세점 등 전문적인 쇼핑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無等鼓

조선 정조 때 이문원이라는 관서가 있었다. 이문원은 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천보가 사도세자를 위한 중정에서 자결했다는 점을 감안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관직을 내려 준용한 것이었다.

배가 아팠던 중신들은 머리를 짜내 이문원을 과거시험을 총괄하는 도시관(都試官)에 천거했다. 무식한 이문원을 서(敎書)는 관행이 됐으며, 시험장엔 답안지를 대신 지어주는 거북(巨驛)과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수(寫手)가 우글거렸다. 오죽하면 성호 이씨가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중 글을 직접 짓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한탄했을까.

최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문제 유출로 국내 SAT시험이 취소된데 이어 방송국이나문서와 지를 장원급제로 매기고, 그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합격시켜 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거는 조선조 500년 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 24년 치른 초시에는 11만1838명이 응시했고, 이를

시험관들은 멋모르고 그렇게 해주었는데 웬걸, 이문원은 맨 먼저 받은 시험지를 장원급제로 매기고, 그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합격시켜 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거는 조선조 500년 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 24년 치른 초시에는 11만1838명이 응시했고, 이를

력시험(SAT)문제 유출로 국내 SAT시험이 취소된데 이어 방송국이나문서와 지를 장원급제로 매기고, 그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합격시켜 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거는 조선조 500년 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 24년 치른 초시에는 11만1838명이 응시했고, 이를

사(敎書)는 관행이 됐으며, 시험장엔 답안지를 대신 지어주는 거북(巨驛)과 글씨를 대신 써주는 사수(寫手)가 우글거렸다. 오죽하면 성호 이씨가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중 글을 직접 짓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한탄했을까.

최근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문제 유출로 국내 SAT시험이 취소된데 이어 방송국이나문서와 지를 장원급제로 매기고, 그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합격시켜 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거는 조선조 500년 중에서도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록을 보면, 정조 24년 치른 초시에는 11만1838명이 응시했고, 이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00-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